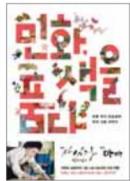


민화는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는 그림 자연이 내주는 색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민화 색을 품다

오순경 지음

‘초충도’, ‘일월오봉도’, ‘봉황도’, ‘십장생도’, ‘화조도’, ‘화훼도’, ‘기명절지도’, ‘호피도’, ‘풍속도’ 등...

앞서 열거한 작품은 신사임당의 그림이다. 신사임당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면에 걸쳐 드러난다.

조선시대 서민의 일상을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한다. 자연이 내어주는 색의 아름다움, 민화의 다양한 모습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민화 작가이자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전통화 부문 디렉터로 참여했던 오순경 작가가 펴낸 ‘민화 색을 품다’는 대중을 위한 민화 에세이다. 저자는 민화가 ‘한국 전통 채색화’의 중요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음을 주목하며, 민화를 조형성과 품격 면에서 높은 예술성과 표현 기량을 가진 전통 회화로 이해한다.

“꽃과 나무와 열매, 새와 곤충과 동물, 그리고 다양한 기물에 색을 입히고 의미를 부여해 우리 삶의 공간에 들어놓는 것이 민화입니다. 또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을 담아 그림을 보는 이의 마음으로 전해 온 그림이 바로 민화입니다. 그 때문에 민

화를 그리면서 그 마음을 잘 살리게끔 색을 입히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삶에 색을 입히는 과정과 닮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림에 색을 입히고 마음을 담는 과정이지 그림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책에는 저자의 대표 작품 80여 점을 물론 조선 최고의 화가 정선의 ‘금강산도’ 등 전통 회화 30여 점을 비롯 110여 점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모두 4개다. 색, 마음, 공간, 이야기라는 주제를 매개로 작품에 대한 설명과 작가의 경험, 민화 감상에 필요한 지식 등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민화는 수정을 할지언정 망치는 건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작품을 그리는데 도중에 고양이가 실수로 밟고 지나간 자리에 나비가 탄생하고, 실수로 된 먹 자국에 벌이나 개미, 나비나 매미가 그려지기도 한다. 잘 번지는 안료의 특성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림으로써 색감과 느낌이 좋아지고, 그림에 품위까지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화는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는 그림”이라며 “화가로서의 스킵을 단번에 익히려고 하기보다는 작품에 담고자 하는 뜻을, 그림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아가며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라”고 당부한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선거는 전쟁...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되는 전략

네거티브 아니토미

배철호·김봉신 지음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말 그대로 ‘창고 대방출’ 수준의 온갖 네거티브 소재가 쏟아진다. 그러나 말을 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며, 듣는다고 모두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다. 타격하고자 하는 지점과 내용을 정밀하게 해야 한다. 한 방에 이것저것 다 결부시켜 판을 키우려는 욕심은 제기했던 이슈마저 초점을 흐리게 한다. 신상이면 신상, 정책이면 정책 등 그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타격해야 효과적이다. 과도한 건강 부회석 해석은 자칫 초점을 흐릴 수 있다.” (본문 중에서)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캠프 관계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네거티브’ 대비 전략일 것이다. 물론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선거는 생활을 건 전쟁이다. 이기느냐, 지느냐로 명료하게 완료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웬만한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선거에 끝수는 없다. 그것은 당한 사람(진영)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세상에 티끌 같은 흙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 예수, 부처, 공자도 선거에 출마하면 ‘검증’이라는 잣대로 난타당한다. 일반인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아무리 본인이 깨끗해도 자식과 가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한 조상들 행적까지 날발이 까발러지는 것이 선거판이다.

언급한 대로 선거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미 전 하원의장이자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자인 뉴트 길리치는 1994년 이런 말을 했다. “정치와 전쟁은 아주 비슷한 시스템이다. 전쟁은 피가 없는 전쟁이다”라고.

‘비대칭 전략’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네거티브다. Mind Targeter Group 메르켈 대표 컨설턴트 배철호 씨와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조사를 수행했던 김봉신 씨가 펴낸 ‘네거티브 아니토미’는 ‘네거티브의 A to Z’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은 ‘참모’와 ‘여론조사자’로 뛰어난 현장 전문가의 노작답게 구체적인 사례와 아울러 맥락 등을 분석한다.

책은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즉 실무사시적 접근을 했다. 또한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방식은 공격적으로 선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들은 네거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선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은 네거티브 캠페인 고찰에 관한 글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격돌했던 힐러리 클린턴(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광주일보 DB〉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루면서 이슈를 제기하는 주체와 제기하는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을 다뤘다.

두 번째 장은 네거티브 공방의 원칙과 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수명 주기 개념을 이용해 이슈 진행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장은 네거티브를 고려한 전략을 짜는 데 있어 각종 여론조사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후보자나 선거 캠프가 체크해야 할 요소를 제시했다.

마지막 장은 후보와 조직, 참모를 중심으로 갖춰야 할 자질과 주의점을 담았

다. 네거티브 입소문을 막기 위해 사전 체크 필수사항 10개 항목을 수록했다.

“선거에서는 누구도 네거티브의 칼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 속성은 전쟁과 하등 다를 바 없고, 네거티브는 필수적인 차원을 넘어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현실적 당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리빙이 ‘전쟁은 속임수’라며 ‘병이사립(兵以詐立)’이라는 말로 압축했다면 저자는 이를 비틀어 ‘캠프네일’이라는 말로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캠프네일은 네거티브다’”

〈글향아리·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와 개성적인 문체의 미학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공지영 지음

‘인간에 대한 예의’,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별들의 들판’ 이후 13년 만에 공지영 작가가 소설집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를 발간했다. 작품집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발표한 작품들 중 이상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21세기문학상 등 수상작과 신작이 수록돼 있다.

이번 소설집에도 공 작가 특유의 장기간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와 개성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꾸려져 있다. 작

가는 지금까지 장편소설을 펴내면서도 단편이 갖춰야 할 소설 미학을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표제작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죽음에 직면한 할머니를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죽음의 행렬을 소녀의 독백으로 풀어낸 소설이다. ‘부활 무렵’은 일찍 집을 떠나 서울로, 지방 공장장으로 떠돌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 밀바닥 생활을 하는 순례의 이야기다. ‘맨발로 글목을 돌다’는 탈출의 희망을 버리고 짐작마저 포기한 다음에서야 운명과 맞닥뜨린 번역가의 일상을 다룬다. 소설은 작가가 지금까지 최의 용서와 화해, 고통과 번민을 통한 인간의 성장을 주제로 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다.

〈해냄·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꿈 멘토들이 십대 청소년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



나의 꿈, 나의 길

안도현 외 지음

학교 교지를 만들던 미술반 학생은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되었고, 뉴욕에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졌던 제주소녀는 미국 간호사가 되었다. 언뜻 보면 하나의 점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꿈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나아갔다’는 것이다.

문학과 영화, 예술과 스포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꿈 리더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안도현·정호승 시인 등 꿈 리더 30인이 펴낸 ‘나의 꿈, 나의 길’은 꿈을 찾는 십대 청소년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다. 책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노력해 당당히 꿈을 이뤄 낸 이들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꿈 멘토들의 면면은 다양하고 화려하다. 대한민국 산업명장 고윤열, 가수 이은미, 인문학자 정민, 뽕 굽는 물리학자 이영진, 배우 홍지민 등은 저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이룬 이들이다. 〈다림·1만1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키마우스가 만든 제국... 꿈꾸고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라



디즈니 세상의 모든...

빌캐포더글리외 지음

어벤져스,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디즈니랜드...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링 기업 디즈니 웨이의 모든것을 이야기 한 책 ‘디즈니, 세상의 모든 꿈을 팝니다’가 출간됐다. 디즈니의 오랜 성공 비법을 연구해 컨설팅 해 온 저자 빌 캐포더글리와 린

슨이 그 노하우를 정리했다.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던 가난한 미술가 월트 디즈니는 1923년 꿈과 열정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미키마우스의 성공을 발판으로 100여년의 시간 동안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세계적인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다.

디즈니는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내 신념에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여 도전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실행합니다.”

〈현대지식·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